

찬바람 불어도 식지 않는 호남불교의 자비

연말 맞아 이웃 돌보기 적극 나서

강원도에는 폭설이 내리고, 전국적으로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옷깃을 여미기 전에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의 쌀독을 먼저 들여다봐야 하는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됐다. 전라북도에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 묵묵히 구슬땀을 흘려온 사회복지관들이 연말을 맞아 화합의 시간을 마련했다.

전북노인복지관 화합 한마당

고창 복지시설 김장김치 전달 등

이웃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마련

전라북도의 불교계 노인복지관들은 일제히 2011년 한해를 마감하는 한마당 잔치를 마련했다.

조계종 금산사 복지원(이사장 원행·금산사 주지)에서 운영하는 전주 서원노인복지관(관장 보연)은 12월 6~7일 '2011 서원 한마당 향기로운 인생! 꽃피는 내정춘!'이라는 주제로 복지관 대강당에서 축제 한

마당을 펼쳤다.

어르신들은 이번 공연에서 1년 동안 같이 닦은 실력을 뽐내며 복지관을 이끌어가는 구성원들과 함께 어울리는 시간을 가졌다.

각종 문화행사와 부대행사 및 전시행사로 구성된 축제에서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12개 프로그램의 작품발표회가 이어졌다. 또한 꽃미남·꽃미녀 선발대회, 어울림 한마당, 작은 연꽃 컵등 만들기, 봉송아 물들이기 등 다양한 체험코너도 마련됐다.

보연 스님은 개막식 인사말에서 "그동안 우리나라를 이끌어오며 사회에 이바지한 어르신들이 이번행사의 주인공이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신천희 시인의 '외삼강'이라는 시를 직접 낭독해 어르신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선운사에서 운영하는 고창 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도안)도 '제4회 복은 문화축제'를 9일 개최했다. 복은 문화축제에서는 문화프로그램 발표회 연극 실버악단 합창 벨리댄스 난타 등의 공연과 한자공예 서예 문인화 등 작품전시회가 펼쳐졌다.

이와 더불어 'Happy 클래식 음악교실' 아이들이 플루트와 바이올린, 통기타 등을



전주 서원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이 무대 위에서 화려한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연주하며 관객들에게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했다.

도안 스님은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문화생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고창군사회복지시설(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고창군노인복지회관, 고창군노인복지센터, 고창군주간보호센터, 고창푸드마켓)들도 김장김치를 담고 지역 내 소외

계층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SK텔레콤 행복나눔 김장김치 지원 사업'에 선정돼 11월 24~28일 지역 소외계층에게 김장김치를 전달했다.

SK텔레콤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지원으로 마련된 이번 김장김치는 지역 내 한부모가정, 독거어르신, 장애인 세대 등 경제상황과 신체활동의 어려움으로 김장을 할 수 없는 75세대에겐 전달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종교 화합을 노래하다

군산 종교인 평화합창제

자비, 사랑, 은혜가 넘치는 '제1회 군산 종교인 평화합창제'가 군산 시민문화회관에서 12월 3일 개최됐다. 군산 지역에서 처음으로 열린 이번 종교인 평화 합창제는 5월 군산시 4대 종단을 대표하는 성직자들이 군산시 종교인연합회를 결성하고, 종교 간 화합을 위한 활동을 논의 중 결정됐다. 4대 종단 성직자들은 각기 다른 음성이 어우러지는 합창이 종교 간 화합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합창제는 군산지역 스님들과 신부, 수녀, 교무, 목사를 비롯한 종교인들과 각 종단의 신도 10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공연에서는 다양한 가곡과 찬불가,



찬양대의 공연과 각 종단 합창단이 모두 한목소리 '군산 찬가' '사랑으로'를 노래하며 소통과 화합을 합창했다.

군산 종교인 연합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불사 주지 종길 스님은 "군산 종교인 합창제의 성스러운 첫 울림이 온누리에 가득 해 맑고 밝은 평화의 등불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링 갈라린뽀체와 모래만달라 대법회

티벳 불교 겐록빠 드레퓌, 로셀링 사원의 스님들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봉행한 모래 만달라 조성 법회가 여법하게 마무리 됐다.

법회는 세계 평화 발원과 티벳 독립을 위해 소신공양한 11명의 스님들을 추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12월 4일 한국티벳 사원인 광성사(주지 소남)에서는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을 모시고 관세음보살 모래만달라 친견 의식과 모래 만달라를 허공에 날리는 회향식이 열렸다.

한편 이번 법회는 11월 8일 한국티벳 불교사원에서 입제식을 시작으로 경주 위덕대, 부산 흥법사, 대복사, 범어사 등의 각 사찰에서 한 달간의 일정으로 링 갈라린뽀체의 초청법회와 모래 만달라 조성 법회를 이어갔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제1회 김천불자의 밤 봉행



경북 김천지역 불자들의 화합 한마당인 '제1회 김천 불자의 밤' 행사가 12월 2일 김천 '탑 웨딩 타운'에서 봉행됐다.

이번 행사는 직지사 주지 성운 스님과 김천불교사암연합회장 성현 스님, 천태종 금강사 주지 보광 스님, 이철우 국회의원, 박보생 김천시장 등 2000여 명의 사부대

중이 참석한 가운데 각종 공연으로 꾸며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한해를 마무리하며 화합과 친목을 다졌고 조계종 8교구 이견우 신도회장 등 불교발전에 기여한 4명을 시상하며 격려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익산 미륵사지석탑 6층까지만 복원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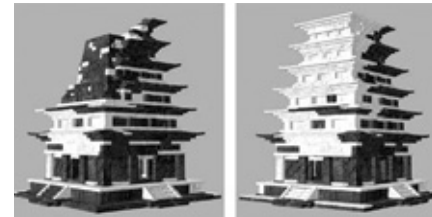
국립문화재연구소 설명회서 공개

2000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국보 제11호 미륵사지 석탑의 해체 보수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공개설명회가 익산시 모현 도서관에서 11월 24일 개최됐다.

미륵사지석탑보수정비사업을 10여 년 이상 담당하고 있는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영원)의 설명회에는 지역 주민과 공무원, 문화재 관련자들이 참석해 석탑보수계획을 확인했다. 연구소는 석탑해체작업, 하부 발굴조사, 석탑 부재의 보존처리과정 및 현황, 각종 연구성과 등을 설명했다.

특히 미륵사지 석탑 보수정비 계획은 6층 부분복원안과 6층 전체 복원안 등 두 가지 복원(안)이 최종 검토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보수정비에 있어서는 역사적 가치와 진정성 회복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전통적인 가치를 보존하면서 현대적인 기술을 반영하게 된다.

부분 복원안은 기존의 석탑형상이 반영되고 석재의 재활용 부분이 커 신재사용(구부재62%, 신부재38%)으로 인한 이질감이 적은 반면 전체 복원안은 시각적으로나 구조적으로는 안정적이나 신재의 비율이 많아져(구부재39%, 신부재61%) 이질감이 우려되고 있다.



6층 부분복원정비안 6층 전체 복원안

미륵사지 석탑 보존처리 현황에 대해서는 그간 이루어진 지리적 현황과 재질분석, 훼손도 진단, 석재 산지분석 등 다방면의 연구 분석결과를 토대로 보존처리방안이 마련돼 향후 보수정비사업에 활용될 계획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 건축문화재연구실 배병선 실장은 "주민들이 기억하고 있는 미륵사지 석탑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계획안이 결정되면 단계적으로 보수정비공사가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시청 관계자는 "역사유적지구로서 추진 중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있어서 익산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적 가치인 진정성과 완전성의 핵심 문화유산인 미륵사지 석탑의 보수 정비사업은 국제적인 문화재 보수 복원 원칙에 입각해 신중하게 이루어져 한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남원 영선사, 농민 고충 구원 등판

판로 해소 위해 절임배추 판매

김장용 배추 재배면적의 확대와 풍작으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원시 인월면 주민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폈다. 농산촌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남원 영선사(주지 월공)가 직접 배추 판매에 나섰다.

전북 남원시 인월면 지리산 자락에 자리 잡은 영선사 신도들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배추의 판로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유동업자들이 배추를 헐값에 판매할 것을 요구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소식을 전해들은 영선사가 홈페이지와 인터넷 카페를 통해 김장용 배추 판매에 나섰다. 2500여 포기의 배추를 판매했다.

이 배추는 지리산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밭에서 재배한 고품질 배추로 일반배추와 무농약 대체농법으로 생산한 친환경 유기농 배추다. 최상의 품질을 자랑하는 이 배추는 밭에서 직접 뽑고 사찰에서 소금에 절인 절임배추와 사찰식으로 담긴 김치의 두 가지 형태로 구성됐다. 또한 이 과정을 인터넷 카페에 공개해 소비자들이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월공 스님은 "절에서 이익 보는 건 없다. 농민들이 땀 흘려 지은 배추를 갈아엎는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서 갑작스럽게 시작한 일이었다. 다행히 전국에서 호응을 해주고 구입하신 분들도 만족해서 다행이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생산자인 신도들도 살리고 소비자들도 최상의 김장을 할 수 있는 상생의 방법을 강구하다 절임배추를 판매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판매에는 영선사 공양주 대성보살과 최금진 보살, 사무국장 김홍록 거사 등 자원봉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시종가역보다 15% 가량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었다.

영선사 카페를 통해 절임배추를 구입한 수련화 보살은 "분가 후 김장이 가장 큰 걱정이었었는데 농민도 도우면서 쉽게 김장을 할 수 있었다"며 "고랭지 배추라서 그런지 맛도 매우 좋다"고 흡족해 했다.

한편 영선사는 인월면 소재지에 등용 무료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지역 청소년들의 학업을 돕고 있다. 또 방학기간에는 외지 학생들도 절에서 숙식하며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경 대한민국 중요 무형문화재 50호 축

“태고종 영산재”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등재

전통 범음범패(바라작법) 과정 학인모집

■ 교육 과정

- (1) 초·중급과정
 - ◆ 조석예불 ◆ 사시불공, 각단불공, 시달림
 - ◆ 바라춤: 요잡(막바라), 관옥바라, 천수바라
 - ◆ 나비춤: 사방요신, 도량계
 - ◆ 49재, 천도의식

■ 강주스님: 교무국장 성우

- ◆ 교육시간: 초·중급 - 목요일 오전 10시~1시
- 상 급 - 목요일 오후 2시~6시
- ◆ 개강일시: 2012년 3월 ~ (수시모집가능)
- ◆ 수 강 료: 입학금 10만원(교재비포함), 3개월 30만원
- ◆ 제출서류: 수강신청서 1부(본 교육원에서 교부), 반명함사진 1매
- ◆ 접수기간: 상시모집
- ◆ 연 락 처: 054)975-4339

■ 접수처 및 강의장소

한국불교태고종 경북교구총무원 (전화접수 가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1123-1번지 HD빌딩 2층

한국불교태고종 경북교구총무원

불 세계불교 최고 지도자 초청 행

세계불교문화올림픽개최 성공기원 대법회

각 종단 중정예하 및 총무원장큰스님 그리고 한국불교단체지도자들을 초빙하여 내년 룸비니 세계불교올림픽개최 성공기원 대법회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사는 세계불교최고지도자들과 함께 동참하여 한국불교중흥과 불교 대통합을 이룩하기 위하여 세계 불교문화올림픽개최 성공기원 법회이오니 많은 동참바랍니다.

그리고 각 사찰 주지스님께서는 불사에 공헌한 신도를 추천하여 사단법인 생활불교협의회에서 제정한 공덕장과 세계불교평화상 수여자 명단을 본 위원회로 통보해 주시면 당일 법회에 수여를 하고자 합니다.

항상 원하시는 일 성취하시고 복혜 구축하시어 부처님 자비광명이 충만 하옵기를 기원합니다.

사무총장 석능인 황

아 래

증명대법주 / 만용도일대화상, 영공도성대화상
증명법사 / 대현, 대각, 묘각, 법장, 현덕, 효천, 석문, 진각

■ 일 시: 불기 2555년 12월 23일 금요일 오후 4시

■ 장 소: 대구시 동구 신천 4동 326-1번지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 뒤 제이스호텔 3층 그랜드볼룸

★ 좌석 배정 관계로 동참여부 필히 통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 법요식 후 대중공양 (저녁만찬준비, 불자가수초빙)

★ 행사장문의처: ☎ 053)757-6123

세계불교문화 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회: 053)325-0400, 053)325-5288 / 사무총장: 010-3900-3050